

# 중국어 자유직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 적합성 이론을 중심으로

반우가(한국의국어대학교)

최적(한국의국어대학교)

## 1. 서론

본고는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바탕으로 쑤통(蘇童)의 장편소설 “我的帝王生涯”에 나타난 중요한 문체적 특징인 자유직접화법(Free Direct Discourse, 이하 FDD)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문학 번역에서는 원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즉 문체의 재현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그 이유는 문체가 작품의 주제적 의미와 미적 효과를 표현하고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문학 텍스트, 특히 소설의 문체 장치에는 어휘, 문법, 문장 등뿐만 아니라 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서술 방식, 즉 화법도 포함된다(Leech & Short, 2007, p. 75). 화법은 인물 형상화, 극적 효과, 소설 리듬 구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떤 화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이야기로부터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최적, 2024, p. 159). FDD는 명확한 인용 표시가 없고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보다 자유롭게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 하는 말의 내용, 스타일, 어조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 기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등장인물의 심리 등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의 이러한 문체적 특징, 즉 FDD를 어떤 방식으로 번역해야 목표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 독자가 ST 독자와 동일한 문체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의 적합성 이론 중 최대의 적합성(maximal relevance)으로 설명할 수 있다(조의연과 한미애, 2012, p. 179). 최대의 적합성은 “가능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이를 문학 번역에 적용하자면 ‘최대한의 효과’란 바로 TT 독자가 ST 독자와 동일한 문체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최은정, 2009, 2011, 2012, 2013). 이때 번역자는 번역 과정에서 가능한 한 ST의 FDD를 온전히 보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번역문을 살펴보면 따옴표나 전달절<sup>2)</sup>을 추가하여 직접화법으로, 혹은 다른 화법으로 변환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FDD 번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영 번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에 나타난 FDD가 해당 영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본 조의연과 한미애(2012), “삼포 가는 길”의 영역본 2종을 대상으로 원문의 FDD를 영어로 번역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이창수(2017), “동경”에서 구현된 다양한 화법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화법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특징과 배경은 무엇인지를 고찰한 이세희 등(2022)을 대표적인 연구로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어 FDD이 영어로 번역된 과정에서 대부분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으로 변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조의연과 한미애(2012)는 최대의 적합성 이론을 토대로 한국어 FDD의 영어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문학 번역에서 목표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것보다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체적 특징을 최대한 유지해야 문학적성과 미학적 기능이 살 수 있다는 결론을

1) 최대의 적합성과 관련 내용은 2.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2) 전달절은 기본적으로 인용문의 화자를 지시하는 지시어(이름이나 인칭대명사)와 전달 동사로 구성된다(이창수, 2017, p. 154).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어 FDD의 한국어 번역 양상 분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국에서 중국어 자유화법<sup>3)</sup>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진행된 연구들도 FDD보다는 자유간접화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산칭충(單淸叢, 2022), 최적(2024)이 있다. 산칭충(2022)은 위화(余華)의 소설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에 나타난 자유간접화법의 사례들을 유형화를 시켜 각각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살펴본 후 중한 자유간접화법의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최적(2024)은 라오서(老舍)의 장편소설 “낙타상즈(駱駝祥子)”과 해당 한역본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편, 중국 학계에서의 FDD의 번역과 관련 연구도 주로 중국어 FDD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쉰중수(錢鍾書)의 “포위된 성(圍城)”과 해당 작품의 영역본을 대상으로 중국어 FDD의 영어 번역 양상을 고찰한 상지에(尚潔, 2014), 중국 고전 소설 “홍루몽(紅樓夢)”과 호크스(Hawkes)가 번역한 해당 작품의 영역본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어 FDD의 영어 번역 전략을 분석한 양류천(楊柳川, 2013), “홍루몽(紅樓夢)”의 해당 영역본 2종 간에 FDD 번역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류차오붕과 구시양나(劉超朋과 谷香娜, 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FDD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면서 원문의 문체적 효과가 훼손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중국어 FDD의 번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어 번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어 번역과 관한 연구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원문 문체 특징의 보존을 강조한 최대의 적합성 관점으로, 장편소설 “我的帝王生涯”에서 두드러지는 문체인 FDD가 한역본 “나 제왕의 생애”(김택규 옮김, 2018)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FDD의 문체 효과가 번역문에서 적절하게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학

3) 자유화법이란 한마디로 담화 전달 방식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규범에서 벗어나는 자유직접화법과 자유간접화법을 포함한다(강이연, 1995, p. 638).

번역에서 문체의 중요성을 살펴본 후 문체 요소 중 하나로서 FDD의 형태적 특징과 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적합성 이론으로 FDD가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작품을 소개하고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하겠다. 4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소개한 이론을 기반으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나누어 “我的帝王生涯”의 특징적 문체인 FDD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분석하겠다. 5장에서는 본고의 결론과 한계를 논의하겠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체와 자유직접화법

#### 2.1.1 문체의 중요성

문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문체는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 또는 작가 특유의 사상이나 정서의 체계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언어의 자질(김희영 등, 2014, p. 271), 반복법, 비유법, 반어법 등 수사법을 비롯하여, 화법, 문장 길이 등 문학작품의 창작에 사용하는 기법(김정자, 1994, p. 108), ‘특정한 관점에 대한 결심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의 조합’이자 작가와 화자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적·무의식적 선택의 결과(Boase-Beier, 2004, p. 29)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주장들을 총괄하여 보면, 문체란 한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기법이며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학 텍스트는 심미적 또는 시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텍스트 유형과 구별된다(최적, 2024, p. 183). 문체는 문학 텍스트의 미적 기능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적 효과를 발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Boase-Beier, 2011, pp. 24-32; Sperber & Wilson, 1995, p. 202). 문체가 발산하는 시적 효과는 크게 정서적 효과와 인지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지영, 2022, p. 181). 작가는 문체 장치들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문학 텍스트의 내용에 몰입하게 하고 인물과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만든다. 이러한

감정적인 공감은 바로 정서적 효과이다. 또한 문체는 독자들이 텍스트에 나타난 모호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독자의 의미 탐색은 그의 인지 상태에 변화를 주기에 이를 인지적 효과의 개념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문학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작가가 의도했으나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포적 의미를 무수히 포함하고 있으며(이지영, 2022, p. 176), 이러한 내포적 의미는 반복적으로 활용된 문체 장치들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다.

문학 텍스트에서 문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그 텍스트의 번역에서도 문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이끌어냈다. 즉 문학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천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의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표현 방식, 즉 문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2.1.2 자유직접화법의 형태적 특징 및 효과

리치와 쇼트(2007, pp. 255-281)의 화법 이론에 따르면, 서술자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화법은 보통 FDD, 직접화법(Direct Discourse: DD),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 FID), 간접화법(Indirect Discourse: ID), 화행의 서사적 보고(Narrative Report of a Speech/Thought Act: NRSA/NRTA)<sup>4)</sup>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인물의 말을 전달하는 규범적인 방식은 DD이고, 인물의 생각을 전달하는 규범적인 방식은 ID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 즉 발화는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용 표시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상대방의 생각은 들을 수 없으므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형적이기 때문이다.

FDD는 DD보다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식으로 실현된다. 아래 예문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4) 리치와 쇼트(2007)는 화법을 말(speech)과 생각(thought)으로 나누어 각각 다섯 개의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내 연구에서 말과 생각을 구분하기 보다는 이 둘을 묶어 영어로는 'discourse(담화)', 한국어로는 '화법'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창수, 2016, p. 263).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주장에 따라 말과 생각을 구분하지 않고 '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칭한다.

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He said, "I'll come back here to see you again tomorrow."(DD)  
 他說, “我明天會再回來見你。”  
 그는 “내일 다시 여기 와서 너를 볼 거야”라고 말했다.
- (2) He said, I'll come back here to see you again tomorrow. (FDD)  
 他說, 我明天會再回來見你。  
 그는 말했다. 내일 다시 여기 와서 너를 볼 거야.
- (3) “I'll come back here to see you again tomorrow.”(FDD)  
 “我明天會再回來見你。”  
 “내일 다시 여기 와서 너를 볼 거야.”
- (4) I'll come back here to see you again tomorrow. (FDD)  
 我明天會再回來見你。  
 내일 다시 여기 와서 너를 볼 거야. (Leech & Short, 2007, p. 258)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FDD와 DD 간의 차이는 주로 ‘He said(他說, 그는 .... 라고 말했다.)’라는 전달절과 인용부호 따옴표의 유무에 있다. DD에는 인용부호와 화자의 말을 꾸며주는 전달절을 통해 서술자의 존재를 표시한다. 이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생략한 방식이 바로 자유직접화법이다.

(2)는 인용부호가 생략된 경우로, 서술자의 말과 인물의 말에는 구분이 없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앞뒤 절에서 각각 다른 인칭대명사(3인칭 ‘他’와 1인칭 ‘我’),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앞뒤 절에서 각각 다른 시제(‘said, 말했다’와 ‘will come, -르 거야’)를 통해 서술자와 인물을 구별할 수 있다. (3)은 전달절이 없는 경우로, 이러한 문장이 작품에서 연달아 나타나면 해당 내용을 누가 말하고 있는가가 혼동될 수 있다. (4)는 전달절과 인용부호가 모두 생략된 경우로 서술자의 주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가장 전형적인 FDD 구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앞의 (2)와 (3)의 FDD 구문보다 문체적 효과는 더 강하다. 왜냐하면 전달절이나 인용부호는 발화의 출처를 명확하게 부각하고 독자의 주의를 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에 둘 중 하나가 추가된다면 원래 매끄러운 서사 흐름이 끊기고 서술과 인물의 발화나 생각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게 된다(申丹, 2019, p. 290).<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4)의

FDD를 ‘강성 자유직접화법’ 구문으로, (2)와 (3)의 FDD를 ‘약성 자유직접화법’ 구문이라고 부르겠다.<sup>6)</sup>

하나의 서사 기법으로서 FDD가 문맥에 부여하는 가장 특별한 문체 효과는 “직접성, 생동감, 모호성”(申丹, 2019, p. 290; 조의연과 한미애, 2012, pp. 185-186)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서술자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해석 없이 인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는 인물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마치 “등장인물이 자신 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Leech & Short, 2007, pp. 258-259)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기법은 독자가 인물과 가까워지게 하며, 서술자와 인물 간의 경계를 허물어 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외에도 FDD의 사용으로부터 모호함의 효과, 다시 말해 서술자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융합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조의연과 한미애, 2012, p. 186; 이창수, 2017, p. 155). 이러한 효과는 특히 1인칭 시점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인칭 시점 작품에서 서술자와 주인공은 모두 ‘나’이기 때문이다. 이때 독자는 앞뒤 맥락을 통해서야 해당 내용이 서술자의 목소리인지 인물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FDD를 사용하는 경우 DD나 ID보다 독자가 읽는 속도는 느려진다. 물론 FDD가 문맥에 ‘직접성, 생동감, 모호성’과 같은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은 이러한 약점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FDD는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보다 자유롭고 유창하게 전달할 수

- 
- 5) 한국어 화법의 영어 번역을 고찰한 이세희 등(2022)에서도 “맥락상 발화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경우 오히려 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따분함을 자아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p. 104).
  - 6) 한국어 FDD의 영어 번역을 살펴본 조의연과 한미애(2012)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 방식에 따라 한국어 FDD를 강성 FDD와 약성 FDD로 나누어 살펴봐왔다(조의연과 한미애, 2012, p. 185). 즉 이러한 분류 방식은 한국 문학 작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도 이러한 분류 방식을 따라 중국어 FDD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 7) 조의연과 한미애(2012), 이창수(2017) 등을 통해 FDD는 한국 문학 작품, 예를 들면 “동경”, “삼포 가는 길”,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등에서도 많이 등장하여 신단(申丹, 2019)에서 소개한 FDD와 똑같은 문맥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있는 서술 기법으로서, 틀림없이 문학 작품의 중요한 문체적 요소 중의 하나다. 그러면 번역 과정에서 FDD를 유지하여 원문의 효과를 번역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2 적합성 이론과 문체 번역

적합성 이론에서는 의사소통이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에 의해 성립된다고 본다. 즉, 화자가 제공하는 자극을 청자가 추론하여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스퍼버와 윌슨(1986, p. 125)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진 발화 자극을 해석할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맥락 효과를 얻으려 하며 이때 ‘맥락’이란 발화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세상에 대한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마다 물리적 환경과 인지 능력이 다르기에 때문에 정보를 수용하고 전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각자의 인지 환경(cognitive environment)이 다르므로 화자의 발화가 청자의 인지 환경을 수정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고 한다. 맥락 효과는 청자의 인지 환경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는 자극과 추론적 조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효과가 발생해야 비로소 해당 발화를 적합(relevant)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발화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적을수록, 그리고 맥락 효과가 클수록 적합성이 높아진다(양창현, 2015, p. 36).

스퍼버와 윌슨(1995, p. 260)에서는 이 적합성 원리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In Relevance, we make two fundamental claims, one about cognition, the other about communication:

- ① Human cognition tends to be geared to the maximization of relevance.
- ② Every act of ostensive communication communicates a presumption of Its own optimal relevance. (Sperber & Wilson, 1995, p. 260)

첫 번째는 인지 원리인 최대의 적합성으로, 인간의 인지는 처리하는 정보의 적합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Sperber & Wilson, 1995, p. 261)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원리인 최적의 적합성이며 사람의 의사

소통 행위 자체가 최적의 적합성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perber & Wilson, 1995, p. 158). 이를 토대로 히가시모리(Higashimori)와 윌슨은 이 두 가지 적합성 원리 간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대의 적합성은 “가능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달성하는 것이고, 최적의 적합성은 “충분한 효과를 불필요한 노력 없이”(Higashimori & Wilson, 1996, p. 2)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두 원리에 따른 맥락 효과 간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이를 예문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a. My childhood days are gone, gone.  
(내 어린 시절은 가버렸어, 가버렸어.)
- b. My childhood days are gone.  
(내 어린 시절은 지나가 버렸어.)

(Sperber & Wilson, 1995, p. 221)

a와 b는 동일한 내용, 즉 ‘내 어린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가버렸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b의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b보다 a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맥락 효과는 다르다. a 구문은 표현의 반복이라는 명시적 자극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더욱 강한 안타까운 감정을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가 지나간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이때 a는 b보다 맥락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다. 즉 a에서 최대의 적합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는 독자의 주의를 더 많이 끌 수 있는데, 적합성 이론에서는 이렇듯 청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명시적 자극을 “인지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발견적 장치(heuristic device)”(Sperber & Wilson, 1995, p. 152)라고 부른다.

문학 텍스트에서는 문체가 바로 이러한 장치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체가 작가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이러한 자극, 즉 문체를 극대화하여 번역하면 번역문에서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작가의 내포적 의미를 유추하도록 유도하여 최대의 인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구트(Gutt, 2000, pp. 76-7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ST 독자와 TT 독자 간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에 ST의 문체를 TT에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함축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고의 분석 대상인 FDD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서 존재하고 또한 이 문체적 장치가 문맥에 부여하는 효과도 비슷하다. 그러면 한국어 번역문에서 중국어 원문의 FDD를 최대한 보존하면 TT 독자도 ST 독자와 동일한 맥락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즉 FDD 문체의 번역에 있어서 이 장치를 최대한 보존하여 가능한 한 번역문 독자가 원문 독자와 동일한 인지적 효과를 얻는 것을 통해 최대의 적합성을 성취할 수 있다. 이는 문학 번역에서 텍스트의 형태적 특징과 문체적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보스 바이어(2011, p. 4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최대의 적합성 관점으로 문학 작품에 나타난 FDD 구문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 3.1 연구 대상

본고에서 분석한 중국어 원문은 쑤통의 장편소설 “我的帝王生涯”이다. 함께 분석한 한국어 번역문은 2018년에 출판된 김택규의 “나 제왕의 생애”이다. 이 소설은 ‘섭국(變國)’이라는 가상의 왕조를 배경으로, 어린 나이에 제왕이 된 소년 단백(端白)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역사소설이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인명, 지명,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상상의 산물이다. 역사에서 길어 올린 소재뿐만 아니라 작법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고대소설의 요소들을 빌려와 진짜 같은 왕의 일대기를 완성한 이 작품은 쑤통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특이하고 상상력이 넘친다는 평을 받는다(김택규, 2018, p. 341).

이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문단에서 쑨통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였다. 쑨통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 중의 한 명으로 문학 평론가들의 인정과 대중들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다. 둘째, 이 작품이 한국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였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 한국에 출판된 쑨통의 모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호평을 받고 높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김택규, 2018, p. 340). 셋째, 이 작품에는 중국어 FDD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쉐시엔(張學昕, 1998, p. 61)에 따르면, 쑨통 소설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로 자유직접화법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화법을 창의적으로 변형하는 데 능하며 인용부호를 생략하고 서술자와 인물의 발화를 혼합함으로써 서사 흐름의 유창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간결하면서도 몰입감이 높은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데 “我的帝王生涯”는 이러한 FDD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3.2 분석 방법

본고는 “我的帝王生涯”에 나타난 FDD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실시하였다.

첫째, ST에서 FDD가 사용된 구문을 찾아 그것이 TT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엑셀에 기록하였다.

둘째, 2.2에서 설명한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구문의 앞 또는 뒤에서 전달절과 인용부호의 유무에 따라 ST의 FDD를 강성 FDD와 약성 FDD로 분류하였다. 전달절과 인용부호가 모두 없는 경우는 강성 FDD로, 그중 하나만 있는 경우는 약성 FDD로 세분화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분류 방식과 리치와 쇼트(2007)의 화법 유형에 따라 TT를 세분화하였다. 번역자가 ST의 FDD를 단일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화법 유형을 결합하여 번역하는 경우는 혼합으로 표시하였다. 결국, 본고는 TT에서 강성 FDD, 약성 FDD, DD, ID, 혼합, 생략의 여섯 가지 유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중 혼합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9개가 있다. 그 유형은 약성 FDD+강성 FDD, 서술문+약성 FDD, 서술문+DD, 약성 FDD+ID, 약성 FDD

내포 ID<sup>8)</sup>, ID+DD, DD+강성 FDD이다. 본고에서 선정한 텍스트가 ‘나’라는 인물의 시점을 취한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인물의 말과 서술자의 말을 구분하는 일에 약간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도입하여 정확한 분류를 기하였다. 과거 시제와 문어체로 끝난 문장이 일반 서술문으로 번역된 경우, 이를 서술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일반 서술문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문장에서 명확한 주어가 있고 인물의 감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를 강성 FDD로 간주한다. 예컨대 ST의 ‘我真的不知道’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나는 정말로 알지 못했다’로 번역된 경우는 강성 FDD로 간주한다. 이는 문장에서 주어 ‘나’와 감정을 강조하는 부사 ‘정말로’가 있기에 소설 속 인물이 말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은 번역 양상을 ST의 문체 효과 유지 정도에 따라 보존과 변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보존은 원문과 동일한 문체 효과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환은 원문의 문체 효과가 약화하거나 손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번역 양상별 문체 효과 유지 정도 분류

ST	TT	
강성 FDD	강성 FDD	보존
	약성 FDD	변환
	DD	
	혼합	
약성 FDD	강성 FDD	보존
	약성 FDD	변환
	DD	
	혼합	
	ID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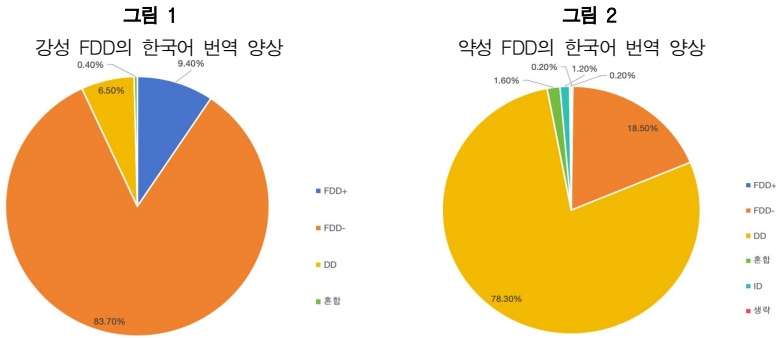
8) 약성 FDD 내포 ID 형식은 형태상으로는 약성 FDD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ID로 번역된 구문을 의미한다.

<표 1>에서 보듯이, 본고는 강성 FDD가 강성 FDD로 재현된 경우를 보존 유형으로 간주하며 나머지 약성 FDD, DD, 그리고 혼합 방식으로 번역된 경우는 변환 유형으로 간주한다. 반면, 약성 FDD 번역 양상에서는 약성을 그대로 약성 FDD로 번역한 경우와 강성 FDD로 번역한 경우를 보존 유형으로 간주하며 나머지 DD, ID 그리고 혼합 방식으로 번역된 경우는 변환 유형으로 간주한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점은 약성 FDD를 강성 FDD로 번역한 양상이 보존 유형으로 간주되는 이유이다. 형식적으로 원문과 번역문 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번역문에서 강성 FDD로 번역될 때 대체로 문체 효과가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보존으로 분류하는 일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4. 연구 결과 논의

##### 4.1 중국어 FDD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정량 분석

본고는 ST에서 총 780개의 FDD 구문을 도출하였다. 이중 강성 FDD는 277개, 약성 FDD는 503개로 나타났다. TT에서 이를 다양한 형태로 번역하였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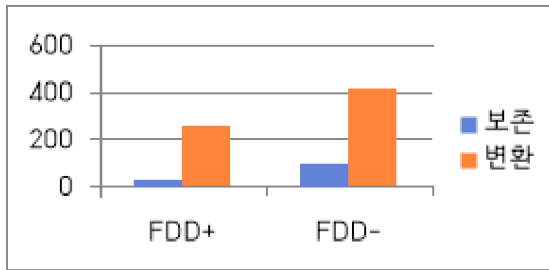


9) 본고에서는 통계의 편리성을 위하여 강성 FDD를 FDD+로 표시하고, 약성 FDD를 FDD-로 표시한다.

<그림 1>에 따르면 강성 FDD는 강성 FDD, 약성 FDD, DD와 혼합 등 네 가지 형태로 번역되었다. 이 중에서 약성 FDD로 변환된 경우는 232개로, 전체의 83.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강성 FDD로 유지된 사례는 9.4%(26개), DD로 번역된 사례는 6.5%(18개)로, 혼합 방식으로 번역된 사례는 0.4%(1개)를 차지했다. 반면 <그림 2>에 따르면 약성 FDD의 한국어 번역문이 강성 FDD, 약성 FDD, DD, 혼합 이외에 ID, 생략으로 변환된 경우도 관찰되었다. 분석 결과, DD로 변환된 경우는 총 394개로 가장 높은 비율인 78.3%를 차지한다. 그에 이어 약성 FDD로 번역된 경우는 18.5%(93개), 혼합 방식으로 번역된 경우는 1.6%(8개), ID로 번역된 경우는 1.2%(6개), 강성 FDD로 번역된 경우는 0.2%(1개), 생략된 경우는 0.2%(1개)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위의 분석으로부터 도출한 결과를 원문 문체 효과 유지 정도에 따라 보존과 변환 두 가지로 나누어 강성 FDD와 약성 FDD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강성 FDD vs 약성 FDD의 보존 및 변환 양상



위의 <그림 3>과 같이 강성 FDD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보존은 26개, 변환은 251개로 나타나며 약성 FDD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보존은 94개, 변환은 409개로 나타났다. 강성과 약성을 합해서 ST의 문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보존된 경우는 단 120개로, 전체의 약 15.4%에 불과하다. 반면, 변환의 경우는 660개로 전체의 84.6%에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드러나

는 사실은, TT에서 ST의 문체적 특징이 상당 부분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ST의 문체 효과를 TT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ST에서의 강성 FDD와 약성 FDD가 TT에서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4.2 번역 사례 분석

### 4.2.1 강성 FDD의 보존

<예문 1>

ST: 我想不管她是誰, 一旦被割除十指就無法再彈琵琶了。在往後的歡慶佳節中, 不知是否還會有美貌的婦人在花園裡懷抱琵琶, 撥弄出珠璣撞玉的仙境般的音樂? 我不懷疑黛娘曾經买通宮廚, 她在我胞兄端洗的甜羹里下了砒霜。

TT: 나는 그녀가 누구이든 간에 열 손가락을 잘렸으니 더는 비파를 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명절 연회에서 화원에 앉아 비파를 선경仙鏡이 펼쳐지듯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미인이 또 있을까? 나는 대낭이 정말로 궁정 요리사를 매수해 내 친형 단승의 국에 비상砒霜을 넣었다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예문 1>을 살펴보면 ST의 밑줄로 표시된 구문은 주인공 단백의 마음속 활동, 즉 생각이다. 이 문장은 전달 동사나 인용부호가 없기에 강성 FDD에 속한다. ST에서는 이 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내면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생동감이 극대화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물의 생각과 서술이 더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결합하여 이야기의 흐름이 더 매끄럽게 이어진다. TT에서도 동일한 문체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마찬가지로 강성 FDD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원문의 내용을 TT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원문의 문체적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 4.2.2 강성 FDD의 변환

강성 FDD의 변환은 주로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약성 FDD로 바꾸는 경우로, 원문에서는 전달절과 인용부호가 모두 없지만 번역

문에서는 전달절이나 인용부호가 추가되어 강성 FDD가 약성 FDD로 번역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전달절과 인용부호를 모두 추가하여 DD로 번역된 경우이고, 마지막은 약성 FDD+강성 FDD의 혼합 방식으로 번역한 경우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1) 약성 FDD로 번역된 경우

<예문 2>

ST: 燕郎, 我的奶名叫鎖兒, 我的學名叫開祺。

你多大啦? 我笑起來, 我覺得他的口齒特別伶俐。

十二歲, 是屬小羊的。

夜裡你在我的榻下睡吧。

TT: “연랑燕郎이라고 합니다. 아명은 쇠아鎖兒. 학명은 개기開祺이군요”

“나이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말주변이 꽤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두 살입니다. 양띠이군요.”

“너는 밤에 내 침상 밑에서 자거라.”

TT10): 연랑燕郎이라고 합니다. 아명은 쇠아鎖兒. 학명은 개기開祺이군요.

나이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말주변이 꽤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두 살입니다. 양띠이군요.

너는 밤에 내 침상 밑에서 자거라.

<예문 2>는 섭왕 단백이 환관 연랑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문맥을 통해 이 장면에서 단백과 연랑 사이의 대화가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에서 이 대화는 전달절과 인용부호의 사용 없이 강성 FDD의 형식으로 계속 처리되었고, 그 결과 서술자 개인의 주관이나 해석 없이 인물의 목소리를 유창하게 그대로 드러내었다. 반면, TT에서는 따옴표(“”)를 추가하여 인용부호가 있는 약성 FDD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발화자 간의 경계선이 명확해졌다. TT 독자는 읽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원문의 문체적 효과가 다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번역 방식은 문

10) TT은 필자가 추가한 제안 번역이다.

체 효과를 극대화한 최대 적합성보다는 독자의 이해가 쉬운 최적 적합성을 고려한 번역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DD 문체는 한국어에서도 역시 존재하는바, TT처럼 인용부호를 생략하고 강성 FDD 문체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TT 독자는 구어체 어미를 통해 해당 구문이 대화문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DD로 번역된 경우

<예문 3>

ST: 孫信停止了可笑的撞擊，然後朝天響亮地打了個噴嚏，變國的災難就要降臨了。

TT: 손신은 그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멈추더니 하늘을 향해 에취, 재채기를 하고는 말했다.  
**“설국의 재난이 머지않았습니다.”**

TT1: 손신은 그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멈추더니 하늘을 향해 에취, 재채기를 했다. 설국의 재난이 머지않았습니다.

ST에서 밑줄로 표시된 구문은 전형적인 강성 FDD 구문이다. 전달 동사와 따옴표가 없이 서술문 뒤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신의 목소리인지 서술자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이는 모호성이라는 문체적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TT에서는 전달 동사인 ‘말하다’와 따옴표를 모두 추가하여 이를 DD로 변환하였다. 이 문장은 소설에서 손신이 한 말로 여러 번 등장한다. 번역자는 TT 독자보다 먼저 ST를 읽은 제1 독자로서 이미 ST의 내용을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구문이 손신의 대사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환은 번역자가 원문의 모호성을 줄이고 TT 독자가 작품의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번역은 독자의 정보 처리 노력을 줄이는 대신 원래의 매끄러운 서사 흐름을 끊을 수 있다. 이 경우 결국 원문에서 의도한 문체적 효과가 손실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ST에 나타난 강성 FDD 문체의 효과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TT1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왜냐하면 TT에서 추가된 전달 동사 ‘말하다’와 인용부호가

없더라도 구어체 어미(‘-습니다’)의 활용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발화와 서술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혼합 방식으로 번역된 경우

강성 FDD를 혼합 방식으로 번역한 사례는 해당 텍스트에서 단 하나 발견되는바, 약성 FDD와 강성 FDD를 결합한 사례가 그것이다. 다음에 <예문 4>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문 4>

ST: 蒼天不容我在大變宮嗎? 蕙妃說。

(1)我不知道。

蒼天不容我在皇上身邊嗎? 蕙妃又說。

(2)我不知道。我真的不知道。

TT: “하늘이 제가 대섭궁에 있는 걸 바라지 않는 걸까요?” 혜비가 물었다.

(1)“모르겠구나.”

“하늘이 제가 폐하 곁에 있는 걸 바라지 않는 걸까요?” 혜비가 또 물었다.

(2)“모르겠다.” 나는 정말로 알지 못했다.

TT1: 하늘이 제가 대섭궁에 있는 걸 바라지 않는 걸까요? 혜비가 물었다.

(1)모르겠구나.

하늘이 제가 폐하 곁에 있는 걸 바라지 않는 걸까요? 혜비가 또 물었다.

(2)모르겠다. 나는 정말로 모르겠다.

<예문 4>는 혜비가 섭왕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문맥을 통해 혜비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단백이 이에 대답했음을 알 수 있다. ST에서의 (1)과 (2)는 모두 단백이 혜비에게 한 대답이며 강성 FDD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번역자가 이를 번역할 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1)의 경우, 원문의 강성 FDD를 약성 FDD로 번역한 유형이기에 여기서는 주로 (2)의 번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TT에서 (2)의 첫 번째 문장 ‘我不知道(모르겠다)’는 약성 FDD의 방식으로 번역된 반면, 두 번째 문장 ‘我真的不知道(나는 정말로 알

지 못했다)’는 ST의 표현 방식을 유지한 채 번역되었다. 즉 번역자는 ST를 약성 FDD+강성 FDD의 혼합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문맥에 대한 인지 차이로 인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번역자는 (2)의 첫 번째 구문인 ‘我不知道(모르겠다)’를 인물이 소리 내어 말한 내용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인용부호(“”)를 추가하여 발화의 출처를 명확히 드러내고 독자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드는 노력을 줄였다. 반면, 두 번째 구문인 ‘我真的不知道(나는 정말로 알지 못했다)’는 인물의 발화가 아니라 마음속 생각으로 해석했으므로 원문의 FDD 형식을 유지하면서 번역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번역자가 자신의 주관성에 따라 이러한 혼합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즉 번역자가 이 구문을 해석할 때 원문의 (2)를 모두 강성 FDD로 이해했지만 자신의 주관성 때문에 이같이 번역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TT에서는 혼합 방식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의 문체적 효과의 일부는 유지되었고 일부는 손실되었으므로 원문의 효과를 온전히 보존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원문의 효과를 최대한 TT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용부호를 생략하고 TT1에서처럼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 4.2.3 약성 FDD의 보존

본고에서는 ST의 약성 FDD를 TT에서 동일한 약성 FDD로 유지하거나 강성 FDD로 전환하는 경우를 보존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 설명하겠다.

##### (1) 약성 FDD로 번역한 경우

<예문 5>

ST: 我說, 祖母喜歡聽那些婦人半夜的哭聲嗎?

TT: “할머님은 그 부인들의 울음소리가 좋으셨나요?”

<예문 5>의 ST는 인용부호가 없지만 전달 동사, 즉 ‘說(말하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성 FDD로 분류될 수 있다. TT에서 역시 해당 발화는 약성

FDD 형식으로 번역되었지만, ST의 전달 동사를 따옴표라는 인용부호로 대체하였다. ST처럼 전달 동사만 있는 FDD든 TT처럼 인용부호만 있는 FDD든 직접화법의 특징 중 단 하나만을 포함하므로 문체적 효과는 둘 다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TT 독자는 ST 독자와 같이 해당 구문을 읽을 때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며 해석하는 데에 다소 시간을 들일 수 있지만, 인물의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원문의 문체적 효과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 (2) 양성 FDD로 번역한 경우

<예문 6>

ST: 我坐在龍輦上神色黯然，想起離宮前卦師占卜的情景，他說，暗箭一出，將被北風折斷。

TT: 나는 우울한 표정으로 어가 안에 앉아 있었다. 문득 궁을 떠나기 전, 점술가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화살이 날아와도 북풍에 꺾일 겁니다.

<예문 6>에서 ST의 밑줄로 친 구문은 인용부호가 없지만 전달 동사인 ‘說(말하다)’가 포함되어 있어 양성 FDD에 속한다. 그러나 번역자는 전달 동사와 따옴표를 모두 생략하여 이를 양성 FDD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TT의 FDD 문체 효과를 향상하고 서사의 흐름이 더욱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최대의 적합성 관점에서 볼 때 번역문은 원문에 비해 문맥 효과가 더 극대화되었다. 따라서 이는 ST의 특징적인 문체를 보존하면서도 원문의 FDD 문체 효과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2.4 양성 FDD의 변환

양성 FDD의 변환은 주로 DD, ID, 혼합 그리고 생략 등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DD로 번역된 경우

<예문 7>

ST: 我厲聲警告他動作利索一點, 我說, 要是被皇甫夫人知道這事, 你就沒命了。

TT: 나는 빨리 벗으라고 매섭게 다그치며 말했다.  
“황보부인이 이 일을 알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TT1: 나는 빨리 벗으라고 매섭게 다그치며 말했다.  
황보부인이 이 일을 알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예문 7>은 주인공 단백이 환관 연랑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ST는 전달 동사인 ‘說(말하다)’만 사용된 약성 FDD로 서술되어 발화 주체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제공해 주면서 앞 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야기의 전개를 더 빠르게 만든다.

반면, TT에서는 원문의 전달 동사를 그대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따옴표를 추가하여 DD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TT 독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 번역자가 최적의 적합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 절에는 이미 전달 동사인 ‘說(말하다)’가 포함되어 있어 독자가 해당 구문을 읽을 때 화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의 문체적 효과를 극대화한 최대의 적합성을 포기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따옴표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결국, TT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면 원문의 특징적인 문체를 보존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ST에서 나타나는 문체적 효과는 상실된다.

(2) ID로 번역된 경우

<예문 8>

ST: 我竟然無言以對, 只說了一句, 到了那裡你什麼都知道了。

TT: 나는 뜻밖에도 해줄 말이 없어 가보면 다 알게 될 거라고만 했다.

TT1: 나는 할 말을 잃고 그저 한마디만 했다. 거기에 가보면 너는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예문 8>은 주인공 단백이 옥쇄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고 밑줄 친 부분은 단백이 하는 말이다. 전달 동사인 ‘說(말하다)’가 사용되어 약성 FDD에 속하고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말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직접성과 생동감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TT에서는 ‘-라고만 했다.’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ID로 변환하였다. 규범적이고 무표적인<sup>11)</sup> ID는 전달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발화 내용을 표현하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화법이며 문맥에 특별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즉 TT와 같이 이렇게 번역하면 인물의 감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어렵고 원문의 생동감도 떨어지게 된다. 유표적인 약성 FDD를 무표적인 ID로 변환한 데서 독자가 읽기 처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번역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원문의 문체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고 재현하려면 TT1처럼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성 FDD를 보존하더라도 독자는 앞 절에 나타난 ‘한마디만 했다’와 ‘-야’라는 구어체 어미를 통해 해당 구문이 인물의 발화임을 추론할 수 있다.

### (3) 혼합 방식으로 번역된 경우

해당 작품에서 약성 FDD를 혼합 방식으로 번역한 사례는 8개가 있다. 그 유형에는 서술문+약성 FDD, 약성 FDD+ID, 약성 FDD 내포 ID, DD+강성 FDD, 서술문+DD, 그리고 ID+DD가 있다. 문체 효과의 유지 정도에 따라, 혼합으로 번역된 사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앞의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원문의 특징적인 문체를 일부만 유지하여 원문보다 문체적 효과가 약하게 나타난 경우이며, 나머지 두 유형은 원문의 문체적 효과가 완전히 손실된 경우이다. 따라서 두 경우 중 각각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겠다. 아래 <예문 9>와 <예문 10>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예문 9>

11) 유표성과 무표성은 언어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거나 소수에 해당하면 ‘유표적(marked)’, 일반적이거나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 ‘무표적(unmarked)’이라고 한다. 유표성은 본래 야콥슨에 의해 구조주의 언어학의 틀 안에서 변별 자질(distinctive features)의 유무를 통해 음소를 정의하는 도구로 제안되었다. 이후 형태론, 의미론, 문체론 등 다양한 언어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유승만, 2006, p. 271).

ST: (1)城裡打了十一天的仗，聽說是新饒王和北王的兒子打，留下幾千具士兵的屍體，屍體都堆在路上，沒人把他們運到亂墳崗去，天氣這麼熱，屍體都發爛發臭了。少年終於扔掉了手裡的竹竿，他似乎已經解除了對我的戒備，饒有興味地描摹著這場瘟疫，(2)他說，屍體都發爛發臭了，蒼蠅和老鼠在死人肚子裡鑽來鑽去，還有這些鳥也成群地往城裡飛，畜生都餵飽了肚子，瘟疫就流行開了。你懂了嗎？瘟疫就是這樣開始流行的。品州城裡已經死了好多人，我們村裡也死了好多人，前天我爹死了，昨天我二哥死了，我娘說過幾天我們母子倆也會死的。

TT: (1)그 시작은 성에서 열하루 동안 벌어진 전투였다. 새 섭왕과 서왕의 아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병사 수천 명의 시체가 길에 쌓였다. 아무도 시체를 묻을 생각을 하지 않아 더운 날씨에 시체가 썩고 악취를 풍겼다. 소년은 마침내 들었던 장대를 내던지고는 나에 대한 경계심을 다 거둔 듯 흥미진진하게 역병에 관해 들려주었다.

(2)“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니까 파리와 쥐들이 죽은 사람들 창자속을 드나들고 새들까지 무리 지어 성 안으로 날아갔어요. 그렇게 짐승들이 배를 채우자마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고요. 품주성에서는 벌써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많이 죽었고요. 그저께는 우리 아빠가 죽고 어저께는 우리 둘째형이 죽었죠. 엄마가 며칠 뒤에는 엄마랑 나도 죽을 거라고 했어요.”

TT1: (1)그 시작은 성에서 열하루 동안 벌어진 전투예요. 새 섭왕과 서왕의 아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병사 수천 명의 시체가 길에 쌓였어요. 아무도 시체를 묻을 생각을 하지 않아 더운 날씨에 시체가 썩고 악취를 풍겼어요. (...) (2)그는 말했다.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니까 파리와 쥐들이 죽은 사람들 창자속을 드나들고 새들까지 무리 지어 성 안으로 날아갔어요 (...)

<예문 9>는 소년이 단백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ST에서 전달 동사인 ‘說(말하다)’의 존재는 이 구문들이 약성 FDD<sup>12)</sup>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12) (1)은 인물의 주관적 감정이 뚜렷하지 않고 또 (2)에 사용된 전달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서술자의 목소리인지 인물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1)과 (2)는 모두 소년이 말하는 대사라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1)과 (2) 사이에 서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단을 하나의 덩

번역자는 원문의 문체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 서술문+따옴표가 사용된 약성 FDD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원문 문체의 일부는 유지되지만 일부는 손실되어 문체적 효과가 약해진다. 이는 번역자의 문맥 인지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문 9>의 경우, ST의 (2)에서 사용된 전달 동사인 ‘말하다’는 (1)의 구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번역자가 이 구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1)을 일반 서술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번역자가 원문의 FDD 문체를 최대한 TT 독자에게 재현하고자 한다면, TT1과 같은 번역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TT의 종결어미 ‘-다를 (1)에서처럼 구어체 어미 ‘-요’ 형태로 바꾸어 독자에게 이것이 인물의 대사임을 알려 주며, (2)에서처럼 따옴표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원문의 문체를 최대한 TT에서 재현할 수 있다.

<예문 10>

ST: 他伏地求我不要聲張此事, 奴才受點皮肉之苦是小事, 張揚出去就會惹來殺身之禍。

TT: 연량은 바닥에 엎드려 이 일을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조금 다친 것은 하찮은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일이 새나가면 소인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TT1: 연량은 바닥에 엎드려 이 일을 퍼뜨리지 말아달라며 빌었다. 소인이 조금 다친 것은 하찮은 일일 뿐입니다. 이 일이 새나가면 소인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예문 10>은 환관 연량이 단백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ST의 전달 동사 ‘求(빌다)’는 밑줄로 표시된 구문이 약성 FDD에 속함을 보여준다. 인용부호를 생략하고 전달 동사만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말과 서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번역자는 원문의 문체 형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ID+DD 형식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번역자가 TT 독자의 정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범적인 화법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방식은 인물의 대화와 서사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깨뜨리며, 원문의 문체적 효과를 상실하게 만든다. FDD 구문의 문체 효과를 고려하여 또 다

른 번역을 제안한다면, <예문 10>의 ST FDD 구문은 TT1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 (4) 생략된 경우

<예문 11>

ST: 流紗的農婦們一齊咯咯地大笑起來，有一個尖銳的聲音向我警告，  
小心官府來砍了你的狗頭。

TT: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일제히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

TT1: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일제히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날카로  
운 목소리가 내게 경고했다. 조심해라. 관아에서 네 놈의 대가리  
를 치러 올지도 모르니까.

원문의 FDD를 번역문에서 생략한 경우는 <예문 11> 뿐이므로, 이는 번역자의 의도라기보다 그가 번역 과정에서 해당 구문을 무의식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ST에서 밑줄 친 부분은 아낙네 중 한 명이 단백에게 한 말이다. 이는 앞 절에 나타난 ‘聲音(소리)’와 ‘警告(경고)’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그러나 TT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가는 해당 내용을 생략하였다. 원문의 효과를 최대한 TT 독자에게 전달하려면 TT1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ST의 FDD를 유지하더라도 독자는 ‘목소리’와 ‘경고하다’라는 표현, ‘-라’라는 구어체 어미, 그리고 ‘관아에서 .... 모르니까.’라는 미(未) 종결문 등을 통해 해당 구문이 인물의 발화임을 유추할 수 있다.

## 5. 결론

본고는 적합성 이론을 바탕으로 쑨통의 장편소설 “我的帝王生涯”에 나타난 중요한 문체적 특징인 자유직접화법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T의 780개 FDD 중 원문의 문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보존된 경우는 단 120개로, 전체의 약 15.4%에 불과하다. 반면, 약성 FDD를 포함한 다른 화법으로 변환된 경우는 660개로, 전체의 84.6%에

차지한다. 즉, TT에서는 ST의 문체적 특징이 상당 부분 소멸하였다. 이를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자가 FDD의 문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최대의 적합성보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최적의 적합성 원칙을 따랐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번역자가 TT 독자의 읽기 난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최대 적합성을 포기하고 최적 적합성을 선택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 점은 번역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번역자가 강성 FDD를 번역할 때 약성 FDD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번역자가 강성 FDD를 번역할 때 약성 FDD로 전환하는 경우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약성 FDD로 번역된 경우, 구문에서 전달절과 인용부호 중 하나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TT 독자들이 강성 FDD에 비해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반면 약성 FDD를 번역할 때, 번역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DD로 번역한 것이다. DD는 전달절과 인용부호가 모두 존재하므로 TT독자가 읽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즉 TT 독자들이 등장인물의 말소리와 서술자의 목소리를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한 번역자의 이러한 선택에 출판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출판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자는 반드시 출판사의 내규 및 방침으로부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번역자가 문맥 인지 부족으로 인해 원문의 FDD 문체 효과를 재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작품 속에서 강성 FDD를 번역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달절이 없고 인용부호도 없는 강성 FDD의 특성은 번역자가 이러한 형식을 일반 서술문으로 해석할 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ST의 문체적 효과가 약화하거나 상실될 수 있다.

셋째, 번역자가 자신의 주관성에 의존하여 번역할 수 있다. 이 점은 ID와 혼합 방식으로 번역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번역자는 ST와 TT 사이의 중개인으로서 번역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표현 방식을 TT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 자신의 주관성이 과도하게 드러나면 ST의 문체 효과를 최대한 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번역본에서 원문의 FDD 문체 효과를 최대한 재

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설의 문체는 문학 텍스트의 미적 기능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적 효과를 발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 번역에서는 문체의 재현이 중요하다. FDD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등장인물의 말이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서술 기법으로서 문학 작품의 중요한 문체적 요소 중의 하나다. 따라서 번역자는 이러한 독특한 문체의 문학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번역문에서 최대한 재현해야 한다. 즉 번역할 때 독자가 정보를 해석하는 데 다소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원문의 미학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품의 문체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그래야 TT의 독자들도 원문의 독자들과 유사한 문체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본고는 중국어 FDD 구문의 한국어 번역 연구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쑤통의 장편소설 “我的帝王生涯”에 나타난 FDD의 번역 양상만 살펴본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안고 있다. 다른 작품에서 또 다른 특성과 대응 방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김택규 옮김. (2018). 나 제왕의 생애. 파주: 문학동네.  
 蘇童. (2012). 我的帝王生涯 [My Life As Emperor].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 <2차 자료>

- 장이연. (1995). 앙드레 지드의 “사전꾼들”에서 담화 전달 기법의 다양성이  
 빚어내는 문체 효과 연구 — 자유화법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31(2), 637-653.  
 김정자. (1994). 문체와 문학. 박갑수. (편), 국어문체론 (pp. 102-112). 서울:  
 대한교과서.  
 김희영, 고광식, 김계영, 김용석, 김중현, 류은영, 문재은, 박우수, 박치완, 원  
 종익, 이종오, 임경순. (2014). 문체론용어사전.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

부.

- 양창현. (2015). Gutt의 적합성 번역이론에 기반한 문화특정어 번역 연구 —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유승만. (2006). 로만 야콥슨의 유표성 이론 연구. 러시아연구, 16(2), 271-291.
- 이세희, 박윤우, 원서진, 이상빈. (2022). 한국 단편소설의 화법과 영어번역에 관한 논의 — 오정희의 “동경”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4(2), 85-110.
- 이지영. (2022). 문학문체 번역의 시적 효과 구현 문제 고찰 — 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한국어본 및 중역본 관용표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4(3), 175-202.
- 이창수. (2016). 동일 원문 한영 소설 번역문 간 화법 번역 차이 연구. 번역학연구, 17(5), 233-250.
- 이창수. (2017). 황석영 저, ‘삼포 가는 길’에 나타난 자유직접화법 번역양상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번역학연구, 18(2), 151-169.
- 조의연, 한미애. (2012). 최대의 적합성으로 본 자유직접화법 —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1), 177-203.
- 최은정. (2009). 미학적 측면에서 본 우리말 소설의 중국어 번역 고찰 — 은희경의 “마이너리그”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54, 377-407.
- 최은정. (2011). 우리말 소설의 중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미적 요소의 재현 문제 — 신경숙의 “외딴방(單人房)”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57, 225-253.
- 최은정. (2012). 우리말 소설의 중국어 번역에서 미적 요소의 재현 문제(2) — 화법에서 본 오정희의 “옛 우물(老井)”. 비교문화연구, 26, 201-226.
- 최은정. (2013). 한중문학번역에서 문화적인 요소의 번역문제(2). 중국소설논총, 38, 207-230.
- 최적. (2024). 중국어 자유직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 다음성 효과 재현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2), 159-188.
- 劉超朋, 谷香娜. (2009). “紅樓夢”中自由直接引語英譯淺析 [An analysi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free direct speech in *The Dream of the Red*

- Chamber]. 文學教育, 83.
- 單清叢. (2022). 漢語自由轉述體在韓國語譯本的對應類型研究 — 以余華小說“許三觀賣血記”韓譯本為例 [A study on the corresponding types of Chinese free indirect style in Korean — Taking the Korean translation of Yu Hua’s novel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as an example]. *한중인문학연구*, 76, 299-326.
- 尚潔. (2014). 自由直接話語在英譯中的變形及敘事效果 — 以“圍城”為例 [The transformations and narrative effects of free direct speech in English translation — Take *Fortress Besieged* as an example]. *江蘇外語教學研究*, 4, 88-92.
- 申丹. (2019). 敘述學與小說文體學研究(第四版) [A study of narrative and fiction stylistics (4th)]. 北京大學出版社.
- 楊柳川. (2013). 超越時代的文體意識 — “紅樓夢”中自由直接引語的運用及其英譯策略 [Stylistic awareness beyond time — The use of free direct discourse in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and English translation strategy]. *紅樓夢學刊*, 5, 223-237.
- 張學昕. (1998). 想像與意象架設的心靈浮橋 — 蘇童小說創作論 [The imaginative construction of a spiritual bridge — A Study on Su Tong’s fiction writing]. *遼寧師範大學學報(社科版)*, 4, 59-61.
- Boase-Beier, J. (2004). Knowing and not knowing: Style, intention and the translation of a Holocaust poem. *Language and Literature*, 13(1), 25-35.
- Boase-Beier, J. (2011). *A critical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Bloomsbury Publishing.
- Gutt, A.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 Cognition and context*. St. Jerome.
- Higashimori, I., & Wilson, D. (1996). Questions on relevance.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8, 1-14.
- Leech, G., & Short, M. (2007). *Style in fiction: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Longman.
- Sperber, D., & Wilson, D. (1986/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2nd ed). Blackwell.

## **A study on the Chinese-Korean translation of free direct discourse: A relevance-theoretic approach**

**Yujia Pan** (corresponding author, aliaipyj@gmail.c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 Cu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free direct discourse (FDD) is rendered in “Na jewang-ui saengae,” the Korean translation of Su Tong’s novel 我的帝王生涯 (My Life as Emperor), using Relevance The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this end, instances of FDD in the source text (ST) were categorized as “strong” and “weak”, and their respective translation patterns were analyzed. The findings reveal that both strong and weak FDD were more frequently translated through transformation rather than direct preservation. Specifically, strong FDD was most commonly rendered as weak FDD, while weak FDD was often converted into direct discourse (DD). This suggests that the Korean translator prioritized clarity and vividness in conveying the characters’ voices by incorporating elements such as complement clauses or quotation marks, rather than maintaining the original stylistic features. Such a tendency indicates that the translator may not fully recognize the literary value of FDD, opting instead for optimal relevance—focusing on ease of comprehension for the target audience. However, given that literary translation inherently involves the preservation of style, maintaining the stylistic integrity of the original text is essential. Therefore, even if it requires greater cognitive effort from readers, translators should strive to retain the original’s stylistic elements to fully convey its aesthetic and literary effects.

**Keywords:** Maximal relevance; free direct discourse; style; the effect of style; Chinese-Korean translation

**키워드:** 최대의 적합성, 자유직접화법, 문체, 문체 효과, 중한 번역

반우가(제1저자,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KFLT전공 박사과정 수료  
aliaipyj@gmail.com

최적  
한국외국어대학교 KFLT전공 박사과정 수료  
1115757297cd1991@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2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3월 15일